

마음이 기갈될 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사 26:3).

:

당신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갈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기갈은 사역자의 삶을 지치게 하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을 주 앞에서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써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믿음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연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늘의 별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감상에만 젖지 말고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고 … 우리는 잊어버렸다”^{시 106:6-7.} 그렇다면 잠이 들었던 그 장소에 당신을 찌를 수 있는 송곳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섬기는지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되살려서 당신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열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기갈되지 않을 것이며 힘과 열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마음이 기갈될 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사 26:3)

1. 마음이 기갈될 때

오늘의 묵상은 지난 이틀 동안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월 9일 말씀에서는 ‘영적 고갈’이 단순히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2월 10일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 고갈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묵상은 ‘어떻게 하면 그 영적 고갈의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따금씩 찾아오는 영적인 번아웃(burnout)은 우리 마음의 기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는지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런 상태를 알고도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을 주 앞에서 세우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써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십시오.”

우리 신앙의 문제는 ‘계으름’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참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말은 평계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던 사도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방향을 돌리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미 세워진 교회도 있었고, 자신이 자라난 고향이 있기에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열정과 하나님의 방향이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막으실 때, 사도 바울은 멈춰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인도하심을 따라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2.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갈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가 인용하는 시편 106편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

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기갈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이 들었던 그 장소에 당신을 찌를 수 있는 송곳을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깨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자신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깊은 계곡이 있고,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나에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나?’를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 다리를 만든 사람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영혼을 침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remember)’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갈에서 헤어 나와 다시 힘과 열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음이 기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행하면 소망의 불빛이 우리를 다시 비추게 될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① 영적 고갈이 올 때 ‘단순한 기다림’은 영적 계으름일 수 있습니다.
- ②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입니다.

목상 질문 두려움이 찾아왔나요? 영적으로 기갈 되어 있나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목상레시피 | 신명기 28:1–9절 + 이사야 26:3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던 출애굽 2세대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1절)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회상하도록 합니까? (2–3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5–6, 7–8절)

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그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9절)
각 물음에 우리의 삶을 대입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

주는 변함없이 미쁘시고 신실하시도다.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 사랑과 은혜를 잃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눈물로 불러 아뢸 때 귀를 기울이시고
머리를 들어 찾을 때 사랑의 손을 주시는 이로다.
주 외에 나를 알 자가 어디 있으며
주 외에 나를 궁휼히 여길 자가 어디 있으리이까.
오직 주 만이 나의 위로요 나의 힘이요 또 기쁨이로다.
주가 있어 나의 존재가 의미 있고
주가 있어 나의 먹고 잠도 뜻이 있었도다.
주께서 나의 중심에 계심에
혹은 눈물로 혹은 노래로 나의 생활을
향기롭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는도다.

이용도_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中(1901-1933, 부흥사) 「사귐의 기도」 560.